

국힘 당사 전격 압수수색... 특검 수사 전방위 확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중앙당사와 국회 의원회관 내 당 기획조정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조치는 '건진법사 게이트'와 '명태군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 및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핵심 전산자료와 당내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산자료 제출 협조 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집행은 영장을 제시한 뒤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획조정국은 당 지도부 직무를 보좌하며 당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략 컨트롤타워인 만큼,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늠하게 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수사는 2023년 3월 국회의원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기된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인 대규모 입당' 의혹과 직결돼 있다. 특검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도씨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권성동 의원의 당대표 선출을 위해 전국 각지의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확보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윤씨는 전 씨에게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고 물었고, 전 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권성동)"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이 대화가 교단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윤 씨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권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인사들에게 "통일교 핵심 정책의 국가 추진"과 "여당-대통령실 요직에 교단 인사 등을"을 조건으로 윤석열 당시 후보 지원을 제안한 정황도 파악했다. 윤 씨는 2021년부터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최고위층의 결재를 받아 정치권 인사들에게 수차례 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통일교 측도 "교단 차원의 불법 정치 후원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권 의원 자택과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이번 당사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 명부, 공천 관련 문건,

통일교 청탁·공천 개입 의혹 관련 당내 문건 확보 나서 당무 컨트롤타워인 의원회관 내 기획조정국도 압색 통일교도 권성동 지원-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 정조준



나경원 국회의원 의원이 13일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산자료 등을 추가 확보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천 개입, 청탁 의혹을 전방위로 추적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여사의 또 다른 핵심 혐의인 '명태군 공천 개입'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58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2022년 5월 9일, 공천 발표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명태군 씨에게 "김영선 이를 좀 해줘라... 상현이(윤상현 의원)한테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는 녹취록도 공개됐다.

한편, 이날 당사 압수수색 직전 나경원 국회의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내란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정래-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건너지 말았어야 할 강을 건넜다"고 비판했다. 조-김 의원은 최근 내란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행보는 당내 강경 보수층에서 '배신'으로 인식돼 논란이 범야권에서 현재에도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나 의원은 "민주당과 특검의 내란몰이 정치공세에 둘러러서선 안 된다"며 "이는 보수 계열 시나리오에 길을 터주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계획을 몰랐고, 오히려 당원으로 해제를 촉구했음에도 특검이 허구의 내란 프레임에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김건희 구속... 특검, 관저 이전 특혜 수사 확대

尹 부부 초유의 동시 수감... 16개 혐의 수사 속도 21그램 인테리어 업체 본사·관계자 주거지 압색 관저 이전·하도급 구조·대가성 입증에 수사 초점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구속 직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 13일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수사 전선을 확대했다. 특검은 이날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를 건설 산업기법법 위반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했다.

대통령실 이전-관저 증축 과정에서 무자격 하도급과 계약 전 공사 착수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으며, 21그램이 과거 코바나컨텐츠와 인연이 깊다는 점에서 '진분 기반 특혜 수주'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구속 직후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은 기존 '3대 사건'을 넘어 측근-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확장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신병 확보는 수사 속도전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한정 사상 최초로 동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됐다. 영장심사에서는 이른바 '목걸이 쟁점'이 부각됐다.

특검은 이복관 서희건설 회장이 구매해 전달했다고 자수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법정에 제시하며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실물과 진술을 종합한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증거 인멸 염려"를 발부 사유로 든 배경에는 이 같은 정황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즉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돼 미결 수용자 절차를 밟았으며, 특검은 구속 기간 최장 20일 동안 다각적인 대면 조사와 주변 압수수색을 병행할 계

획이다. 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의 '구체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발주-하도급 라인, 대가성 거래, 사적 네트워크의 행정 개입을 촘촘히 입증한다면 나머지 16개 혐의 전반도 도미노처럼 연결될 수 있다.

특히 관저 이전 의혹은 국가 예산 집행과 대통령 부부의 사적 관계가 교차하는 사안으로, 특검이 공사 발주-하도급 구조-대가성-지시개입의 고리를 어디까지 특정하느냐에 따라 과장이 달라질 전망이다.

관건은 김 여사의 대응이다. 첫 대면 조사에서 전면 부인으로 일관한 그는 구속 이후에도 진술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특검은 물증과 제3자 진술, 디지털 포렌식 성과를 앞세워 외박을 쫓아 들어가는 '우회 압박' 전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일부 사안에서 진술 변화가 나타나면, 수사는 급격히 가속하며 공방연계 인물로 확산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수사 전략은 내부 진술과 외부 물증을 통한 동시 압박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진술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21그램 등 관련 업체의 회계하도급 자료, 전자결재-문자메시지 기록, 카드-현금 수수 내역을 정밀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외 체류 또는 잠적 중인 핵심 관계자들의 귀국-소환이 이어질 경우 '연결고리' 입증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김 여사 구속 영장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군 공천 개입 △'건진법사' 금융-청탁 등 3개 사건이 포함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에 관여해 약 8억 원대 이익을 올렸고, 명 씨



김건희특검 수사 주요일지	
2025년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김건희특검' 민중기 특별검사 지명
7월 2일	김건희특검 '현판식과 동시에 정식 수사 개시, 특검법상 특검팀의 수사 대상 16건'
7월 3일	1호 수사 '주가 조작 의혹' 삼부토건 등 13곳 압수수색
7월 18일	'주가 조작'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종호 전 대표이사 구속
7월 29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도씨 구속'
7월 29-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불응
7월 30-31일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발부
8월 1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8월 5일	김건희 여사 최측근 이종호 전 블라델린베스트 대표 구속
8월 6일	김건희 첫 소환 조사
8월 7일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무산
8월 12일	김건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김건희 '집사' 김예성 귀국-공형서체포 및 압송 조사
8월 13일	서울중앙지법,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사상 첫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측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2억7000만 원 상당)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으며, 고가 명품과 특혜 청탁 정황도 확인했다고 본다. 김 여사 측은 "주가 조작 인지 사실이 없고, 무상 여론조사를 금액으로 산정해 위법성을 구성하는 것은 부당하며, 금품 수수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특검의 다음 타깃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총 16개다. 이번 영장에 포함된 3개 사건 외에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양평공공지구 개발 특혜 △'집사 게이트'(IMS 모바일 투자금 유치 관련)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고가 장신구-귀금속 수수 및 재산신고 누락 등 여러 사안이 대기하고 있다. 정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治人治世

고전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 해법

선미디어

황종택 칼럼 신고지신 시리즈 1

고전,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

334쪽 | 15,000원

황종택 칼럼 신고지신 시리즈 2

고전, 당신의 행동을 바꾼다

336쪽 | 14,000원

황종택 칼럼 신고지신 시리즈 3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324쪽 | 14,000원

화제의 책 ★★★★★

언론인 출신 인문학자의 고전 해석 통한 사회적 문제점 해법 제시